

다산포럼



전성근
국립안동대학교 교수

BTS, 기생충, 미나리. 특튼한 실력, 탄탄한 스토리텔링, 타고난 공감 능력으로 한류를 이끄는 대표 브랜드이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일 수 있다”는 표현을 세계적으로 실증해 준 콘텐츠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다. 기성세대를 답습하지 않는 자기 세대 자신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획일주의를 힐책하는 듯하고, 상류사회 하류 인생의 끝없이 뒤틀린 욕망의 이야기는 자본주의를 냉소하는 듯하다. 세대 갈등과 문화 차이를 힘겹게 지만 조용히 극복해 가는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듯하다. 현실을 이야기하면서도 현실이 아니기도 하다. 유토 피아가 바라는 세계이기도 하지만 없는 세계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차이를 통해 발생하는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제어 불가능한 욕망은 지속될 것이며, 지금세대는 조금 지나면 기성세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세상은 불행을 향해서 한 걸음씩 전진한다. 어쩌면 역사가 발

수필의 향기



박용수
광주통신고 교사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돌글돌글개 생긴 돈, 부귀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느냐 열씨구나 절씨구 돈돈돈 돈바라.” 매품을 팔기로 하고 댓값으로 닷 냥을 받은 흥부가 즐거워하는 대목이다. 매를 맞다 죽을 수도 있었으면 좋아하는 흥부 모습에서 기난으로 인한 고달픔이 느껴진다. 오백 년 동안 신처럼 신봉하고 숭배했던 삼강오륜이 단돈 닷 냥에 짓밟히는 장면은 이상과 현실의 간극만큼이나 아프다. 피천득의 수필 ‘은전 한 냥’은 오랫동안 동남으로 어렵사리 은전 한 냥을 모으고 스스로 대견해서 눈물을 흘리는 어떤 거지 이야기다. 거지서 거지의 마지막 발언이 반전이다. 그냥 은전 한 냥이 갖고 싶었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나 무엇에 쓰기 위함이 아닌 거지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좋을 텐데, 그냥이란다. 은전 한 냥을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던가. 그런데 목적이 없었다. 은전 한 냥을 가졌을지라도 목적이 없는 소유는 여전히 거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상거지임을 보여

기고



최정기
전남대 5·18연구소장

엘리엇(T. S. Eliot)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정신적 혼미와 황폐를 표현한 ‘황무지’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썼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4월보다는 5월을 잔인한 달로 받아들인다. 5·18이라는 숫자로 상징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때 5·18은 국가 폭력과 그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 사건이 갖는 역사적 가치인 5·18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1990년대에 정리된 5·18정신은 민주, 인권, 평화이다. 이러한 가치들은 주로 18일부터 21일 사이에 벌어진 항쟁에 근거한다. 하지만 나는 25일의 항쟁 지도부 구성과 27일 새벽의 마지막 저항 역시 5·18정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월 22일부터 25일 사이 광주에서는 시민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과 무기 회수를 주장했다. 수습위원회로 대변되는 이들 역시 공수부대의 폭

대한민국을 왜곡하는 자본권력

전한다는 말은 비역사적인 말일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을 답답하게 바라보자. 자본권력의 뒤틀린 욕망이 정치화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서울과 지방, 영남과 호남, 남자와 여자의 대결 구도. 정치권력의 폭력적 정치권, 언론권력의 편향적 언론권, 이를 포괄하는 자본권력의 독선적 자본관은 어느 곳이나 편재해 있다. 균형과 평안의 정치학은 사라지고 불균형과 불안의 정치학을 내세우는 사회와 국가는 희망이 없다. 21세기는 자본주의가 지배한다. 자본은 인간의 욕망을 지배한다. 하지만 욕망은 무한하고 재화는 유한하다. 자본과 욕망 사이에는 자본권력이 자리하고 있다. 자본권력은 “욕망해 보지 않은 것처럼 욕망하라”고 부추긴다. 무한한 욕망을 극대화하여 유한한 재화를 정탈할 것을 요구한다. 소유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자본권력은 때로는 정치권력으로, 때로는 언론권력으로, 때로는 문화권력으로 자기 변신을 도모한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는 공화국의 원리를 두 가지로 제시한다. 분배 정의와 절차 정의가 그것이다. 사회의 경제적 생산물을 분배하되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분배 정의이다. 분배하는 기준을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절차 정의이다. 공정하라는 말이다. 자본권력은 공정을 왜곡한다.

돈의 무게, 인간의 무게

주는 부분이다. 어디 거지만 그런가. 정신이 없었기 가 벼운 거지는 우리 인간 소유욕의 민낯이 아니겠는가. 돈이 생기면 마땅히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사이에 조율을 잘해야 한다고 말한다. 흥부와 거지를 통해 돈을 천박하게 보지도 말고 너무 경외하지도 말라는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어렵사리 모은 전 재산을 대학에 기부한 노부부의 미담이 들려온다. 자신이 보유한 빅서서 해서웨이 주식 85%를 기부하기로 약속한 워런 버핏이 해마다 보건의료 개선과 극빈층 빈곤을 위해 꾸준히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는 소식도 반갑다. 이견의 삼성 회장의 상속인들이 한 기부와 상속세 신고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인다. 인간이 돈에 구속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돈에 대한 바른 생각, 예의를 갖춘 품격 있는 자세이다. 인간을 평가하는 데 몇 안 되는 돈의 좋은 기준이 쓰임새이다. 그런 면에서 엄청난 액수의 비자금을 숨겨놓고도 ‘전 재산이 29만 원’ 운운하며 골프를 치고 호의호식하는 전두환을 보면 분통이 치민다. 은전 한 냥의 상거지보다 더 천박하고 비루한 그에게서 한없이 가벼운 돈의 무게를 느낀다. 요즘 청년남녀들이 돈이 없어서 사랑을 못하겠다는 것을 보면, 젊은이들에게 돈은 영혼의 해방자가 아니라 정복자인 셈이다. 우리 돈 앞에서 워런 버핏을 꿈꾸면서 두 발은 비굴하게 전두환을 향해 가는지도 모른다.

5·18정신으로 ‘87년 체제’를 넘어서자

력에 분노하고 있었고 정의감도 있었지만, 군과의 대결은 희생자만 양산할 뿐이라는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있었다. 반면에 끝기대회에서 표출된 시민들의 요구는 공수부대가 자행한 폭력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보다 민주적인 정치 체제로의 이행이었다. 이들 역시 계엄군의 무력이 두려웠지만, 그동안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을 헹뎌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25일 결성된 항쟁 지도부는 당시 광주시민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보다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요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진압 작전에 맞서 도청이나 YWCA에서 항전했던 수백 명의 선택도 그동안의 희생과 투쟁을 헹뎌게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안타깝게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지만, 그날의 항전으로 인해 5·18은 1980년대 5월 운동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오늘날의 ‘87년 체제’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필자는 현실에 맞서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시민들의 실천적 행동이 5·18정신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5·18정신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현재의 ‘87년 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정신적 유산이 5·18정신이기 때문이다. ‘87년 체제’는 당시

국민에 의한 지배 체제를 갖추고 있는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국민이 국가의 운영과 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제국주의 체제, 군사독재 체제, 자본권력 체제는 민주주의 체제와 양립할 수 없다. 자본권력이 득세하는 대한민국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라고 부른다. 자유는 구속에서 벗어나 모든 판단과 결정 그리고 실행을 자신이 주체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권력이 판단하고 결정하여 국민의 행동을 유도하는 나라는 자유주의 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여야 한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권을 갖고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이 행사할 수 있으며, 국민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실행되는 정치 체제가 바로 민주공화국이다. 잠재태로서의 민주공화국은 텅 빈 기포에 불과하다. 유명무실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현실태로서의 민주공화국이 요청된다. “나는 주권을 갖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이 있다. 어울려 살면서도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나를 공부할 시간이다. 반성(反省)이라는 말이 있다. 자신을 성찰하라는 말이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진리가 현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 개인이 모두 주체가 되는 것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왜곡하는 정치권력, 언론권력, 그리고 이를 포괄하는 자본권력에 현혹되지 말자.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잘못된 조선 시대 근대화 시대의 관념이 대못처럼 단단하게 박혀 있다. 그런 면에서 흥부나 전두환보다 백석과 김영환의 삶을 통해 돈의 무게를 헤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함흥의 여고 영어 교사로 재직하던 백석은 회식 자리에서 만난 기생 김영환(재자)을 보고 첫눈에 반한다. 오늘부터 당신은 내 여자야.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에게 이별은 없다고 선언한다. 그런 그를 본 백석의 부모는 서둘러 다른 여자와 결혼을 시켜버리지만, 백석은 그녀에게 만주로 달아나자고 제안하고, 먼저 가 있으면 뒤따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홀로 만주로 떠난다. 반면 자야는 백석의 장래에 해가 되지 않도록 만주행을 포기한다. 해방되어 백석이 함흥을 다시 찾았을 때, 자야는 이미 서울로 떠난 후였고 이번에는 휴전선이 둘 사이를 가로막았다. 잠깐의 이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을 아무도 몰랐다. 북에 남은 백석은 1996년 쓸쓸히 죽고, 서울에서 대원각이라는 요정을 운영한 자야는 큰 부자가 되어 홀로 살면서 백석의 시집을 내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그리고 죽기 전에 10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법정 스님에게 시주한다. 많은 사람이 찾는 맑고 향기로운 사람, 길상사다. 백석이 ‘나와 나타사와 당나귀’라는 시를 통해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 않았듯이 자야도 평생 백석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 못했다. 그녀가 1999년 세상을 떠나면서 백석을 떠올리며 했다는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1000억 재산이 백석의 시 한 줄만 못해.’

신군부 반란 세력과 민주당 사이의 타협의 결과였으며, 그만큼 한계를 안고 있었다. 물론 ‘87년 체제’가 이론 독재국가에서 정상 국가로의 전환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 체제, 강고한 진영 논리와 권력의 집중, 사회·경제적 민주화 프로그램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또한 ‘87년 체제’를 지탱하는 헌법은 만들어진지 30년이 지나다 보니 시간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속 가능한 사회,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통일에 대비하는 열린 체제 등에서 ‘87년 체제’는 취약함을 노정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형성된 위기는 그 한계를 더욱 크게 느끼게 한다. 오늘날 5·18정신에 근거한 헌법 개정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작년에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며 “언젠가 개헌이 이뤄지면 그 뜻을 살려 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제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포스트 87년 체제’를 이야기해야 하며, 그 출발점으로 5·18정신을 주장해야 한다. 지금, 여기에 서 5·18정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모두가 숙고해야 할 질문이다.

社說

주목되는 정호용의 입, 진실만 털어놓기를

5·18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89) 씨가 5·18진상규명 조사 위원회에 5·18 가해 책임자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주목되고 있다. 5공화국 신군부의 핵심 인물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5·18과 ‘전두환 집권 시나리오’와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진정서에 담았기 때문이다. 광주일보가 확인한 정 씨의 진정서는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된 것으로 총 2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그는 진정서에서 ‘1980년 5월 10일께 당시 특전사 작전 참모직을 맡고 있던 장세동 의 5인이 광주에 출동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적시했다. ‘전두환의 분신’으로 알려진 장세동 씨가 5·18 작전 광주에서 모종의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 씨는 또한 ‘전두환 집권 시나리오’와 5·18 도청 진압 작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1980년 2월 정당 창당, 4월 언론통폐합 관련 브리핑, 5월 17일 계엄 확대, 5월 31일 국가보위 비상대책

위원회 설립이 진행됐다”고 회고했다. ‘허위수사’ 당시 도청 탈환 작전은 5월 27일에서 사나흘 앞당기는 것이 어떤지 물어왔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는 국보위 설립에 맞춰 광주 상황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서두른 흔적으로 보인다. 다만 정 씨는 당시 특전사령관을 맡긴 했지만 신군부 실세들과 불화·갈등으로 광주 진압 작전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였는데 ‘5·18 가해 책임자’로 지목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5·18조사가 자신을 포함한 37명을 ‘5·18 가해 책임자’로 압축하고 다음 달부터 대면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자 책임을 털어 보려는 것 아니냐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 씨의 주장은 지난 41년 동안 미안으로 남겨진 발표 명령자 및 학살 책임자 규명 등 5·18 핵심 의혹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5·18진상 규명의 마지막 기회가 될 이번 조사에서 정 씨는 부디 진실만을 털어놓기 바란다.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 방지 적극 나서야

‘미세먼지 오염물질 수치 조작’으로 지탄을 받았던 여수산단 내 대기업들이 아직도 반성의 자세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가 재발 방지를 위해 제안한 권고안을 이들 대기업들이 거부한 것이다. 앞서 이들 기업은 미세먼지 원인 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LG화학, 한화솔루션,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은 지난 2019년 4월,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나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조작해 배출한 혐의에 처발됐다. 한편 지역사회의 재발방지 요구가 잇따르면서 전남도를 중심으로 산단 내 다섯 개 마을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전남도·여수시·환경부), 도·시의원, 여수상의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

버نس가 꾸려졌다. 거버넌스는 이어 지역 안전과 건강을 위한 환경관리 대책을 마련, 해당 기업들에게 제시했다. 대기업들은 그러나 여수산단 환경오염 실태조사, 주민 건강 역학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권고안 중 일부 안전의 경우 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데다 과도한 비용과 보안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연일 집회를 열고 ‘권고안 즉각 수용’을 촉구했다. 50억 원이 넘는 역학조사 비용 등은 물론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50년 간 환경 피해를 받아 온 여수 시민의 정당한 요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대기업들은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단지 직접 본 것과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보도하고 독자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광주는 이러한 차이가 내게 처음으로 확실히 드러난 주요 사건이었다.” 1980년 오월 현장을 취재했던 테리 앤더슨 전 AP통신 기자는 1997년 출간된 ‘5·18 특파원리포트’(폴빛)에서 이렇게 술회한다. 취재기에 따르면 그는 5월27일 새벽, 전남도청 남쪽 담에서 10여m 떨어진 속초 창가에서 공수부대의 도청 진압 작전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시도했

마지막 새벽

다. 그러나 공수부대는 그를 포함한 외신기자들이 묵고 있던 대도호텔을 향해 M16을 난사했다. 총탄이 벽을 뚫고 들어오자 기자들은 황급히 복도로 뛰어나가면서 몸을 피해야 했다. 그와 또 다른 외신기자 한 명이 오전 7시 30분께 진압 작전이 완료된 도청 안으로 들어간다.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의 노먼 소프 기자다. 입구에서 한 대령이 ‘폭도 두 명과 군인 한 명이 죽었다’고 말했다지만, 도청 안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시신만 17구에 달했다. 노먼 소프는 흑백 필름과 슬

라이드 필름을 각각 넣은 두 대의 카메라에 도청 상황을 한 컷 한 컷 담았다.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의 최후 모습과 침판에 얹혀 옮겨지는 교련복 차림의 고교생 사망자 두 명의 모습 등도 카메라에 담았다. ‘노먼 소프 기증 자료 특별전’이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 열리고 있다. 언론인의 책무를 다한 기록물 속에 5월 27일 전남도청을 사수하려 했던 시민군들의 ‘마지막 새벽’ 모습이 생생하다. M16을 든 계엄군의 경계 속에 두 손을 치켜든 채 소창가에서 공수부대의 연행되는 시민군들을 촬영한 슬라이드 필름에는 기다란 그림자와 함께 유난히 파란 하늘이 함께 포착돼 있다. 스틸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진압 작전 당시의 총성이 들리는 듯해 참혹함과 비통함이 함께 느껴진다. 노먼 소프는 특별전 영상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향한 길고 긴 투쟁의 일부뿐입니다. 앞 세대가 자유선거를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꽃피우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지금 젊은 세대는 배우고 진심으로 감사하길 바랍니다.”

/송기문 문화2부장 song@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